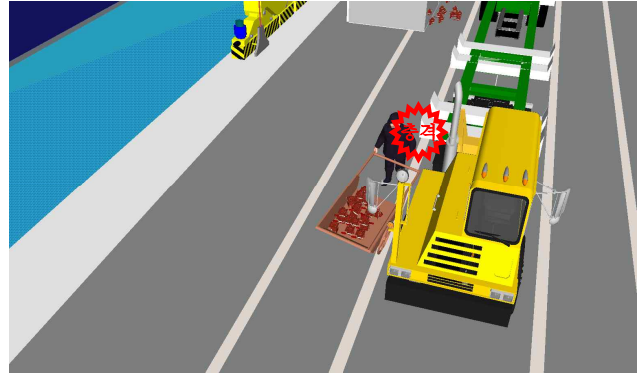


컨테이너터미널 에이프런에서 야드트랙터에 부딪혀 사망

재해개요

2018년 ○월 ○일 09:50분경 부산시 △구 소재 ○○터미널(주) 62번 선석 에이프런에서 (주)☆☆에 소속 일용근로자가 손수레에 컨테이너 결속용 콘을 싣고 이동하던 중 야드 트랙터(Yard Tractor, 이하 “Y/T”)에 부딪혀 사망

재해개요도



재해발생원인

- Y/T의 도로 폭(270cm)이 Y/T 차체 폭(271cm)보다 좁아 Y/T차량의 작업자 이동통로 침범 가능성 높음
- 근로자 이동통로에 콘 박스 등 적치 및 차로 부분침하 등 통로확보 미흡
- Y/T의 유도자 작업위치 부적정

재해예방대책

- Y/T 차량 도로 폭 확장
 - Y/T 차로의 폭은 와 Y/T 차체 폭보다 넓게 구획 설치하고, 이동통로간 안전지대 확보
- 근로자의 안전한 이동통로 확보 및 작업구역 변경
 - 작업자 이동통로 상에 적치된 콘 박스 및 콘 등은 이동통로가 아닌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고, Y/T차로를 보수하는 등 작업자 이동통로 확보
 - 콘의 탈부착작업 및 검수작업 장소는 컨테이너크레인 하부가 아닌 선박의 선두 및 선미 쪽 에이프런에 지정·설치
-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유도자 위치 변경
 - 육상신호수의 작업위치는 Y/T가 진입하는 구간으로 변경하여 Y/T를 유도할 수 있도록 조치